

# 수입농축산물 현황과 한국농업의 위기

최 병 상

(기농 사무국장)

## 1. 수입현황

### 1) 수입단계

8.15해방이후 전쟁구호물자 형식으로 들어오던 외국 농축산물은 1955년 한·미 잉여농산물 협정의 체결로 그 도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공법 480호에 의한 미국의 농산물원조는 미국에서 과잉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장기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해외 판매시장 개척의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장기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판매시장 개척의 일환이었지 우리나라를 위한 자비심에 근거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 50~60년대 : 무상원조로 농업기반과파괴(목화, 밀 등)
- 70년대 : 부족분에 대한 수입, 식량자립도 계속저하 시킴
- 80년대초반 : 물가안정을 빌미로한 과다도입, 권력형 부정축재(쌀수입, 소수입 등)
- 80년대후반 : 구조적이고 본격적인 개방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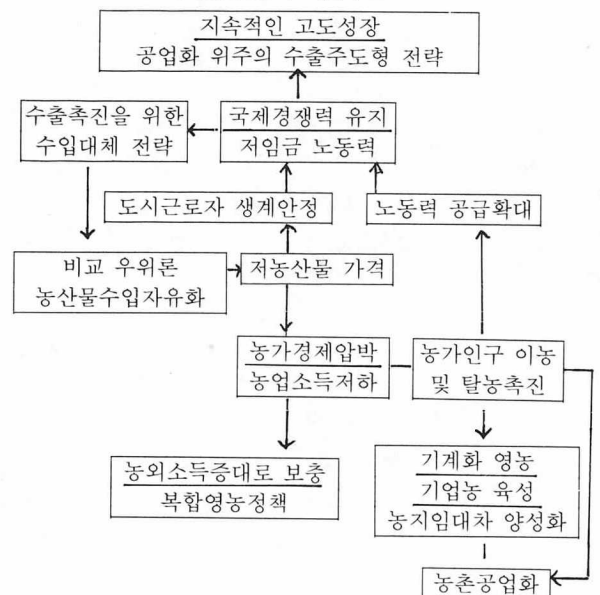
### 2) 수입구조(개방농정)

개방농정은 장기전략으로서 70년대말에 입안되어 공화국이 3번 바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950년

대와 1960년대는 저곡가 정책으로 인해 국제가격보다 낮았고, 국제가격보다 높은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 정책목표 - 물가안정
- 양곡정책 - 이중곡가제의 점진적 폐지
- 식량공급체계 - 농산물 수입개방
- 농가소득정책 - 농외소득 중심
- 농업구조정책 - 대규모 기업농구조

### 개방농정의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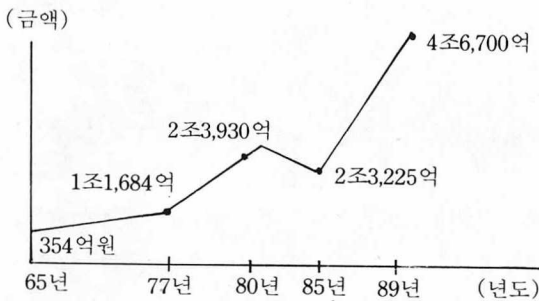
## 특집 II / 공청회 중계 : 수입농축산물 이대로 좋은가?

### 3) 수입현황

원래 우리의 농업생산력은 국내의 필요량을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1949년의 경우 쌀수출량은 6만2천6백석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식량사정은 6.25전쟁을 계기로 정상적인 농업생산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족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를 빌미로 이승만 정권은 필요량 이상의 외국농축산물을 수입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데 활용하였다. 이에따라 쌀값은 폭락하고, 보리는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 가. 수입증가 추이

##### ① 수입액 증가 추이



- 89년 농림수산부 예산 1조5,104억원
- 90년 농림수산부 예산 1조8,497억원

##### ② 수입자유화를 추이(도표)

(단위 : %)

구 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농림수산물	64.3	66.2	68.4	69.1	71.9	76.1	80.3	84.9
농 산 물	68.3	69.2	71.1	72.2	75.1	79.3	82.8	86.2
임 산 물	92.1	93.4	93.4	93.4	94.6	94.9	95.3	97.3
수 산 물	46.7	49.3	54.2	54.2	40.2	48.2	57.9	69.2

## 2. 농업의 위기적 상황

### 1) 농정의 전개상황

① 농정제도 정비기(1948-70) : 농지개혁, 고리대정리, 외원(PI480)에 의한 양곡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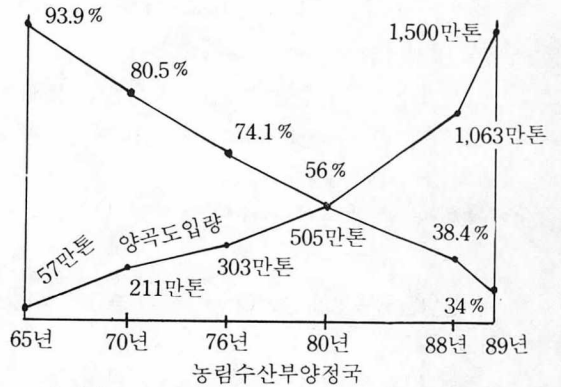
② 주곡증상기(1970-78) : 개방농정, 노풍피해, 냉해, 비교우위론 제기, 농외소득 증대

③ 정책변환기(1978-85) : 개방농정, 노풍피해, 냉해, 비교우위론 제기, 농외소득 증대

④ 신농정론(1986-) : 농어촌종합대책, 농지임대차제도 입법화, 농공지구의 활성화, 농업구조 조성.

### 2) 위기적 상황

#### 가. 식량자금율의 격감



• 품목별자금율

- 밀 0.2% - 옥수수 2.4% - 콩 14.2%

#### 나. 농산물가격의 폭락

• 연속적인 가격파동 : 79년(돼지) → 80년(마늘) → 83년(양파) → 84년(송아지) → 85·86년(소파동) → 87년(배추) → 88년(고추) → 89년(감자)

• 감자값 폭락 : 87.7 수입자유화조치로 89년에 kg당 480원, 90년에 kg당 240원(50% 하락)

• 양고라토끼털 : 89년대비 89년엔 70% 이상 폭락, 재고율 63.7%

국내수요 충족 : 86년엔 23%에서 89년엔 7.8%로 저하

• 사과 : 18kg 한 상자당 89년 : 15,000원, 90년 : 7~8천원

• 옥수수 : 수매도 기피하고 있으며, 수매한 옥수수도 야적으로 방치되어 썩어가고 있음(업체에서 수입품보다 비싸다고 인수기피).

• 무우: 전남 나주 왕곡면에서는 생산농민 김태근씨를 중심으로 저장된 400만평 무우중에서 절반인 200만평 무우를 트랙터로 폐기처분하였다.

### 다. 농가경제의 압박

•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이 910만9천원인데 농가소득은 550만9천원으로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62.64%에 불과하다.

• 농가부채의 추이: 1987년말 현재 부채액은 1976년말 대비 약 65배의 규모이며, 1990년 4월 현재 농가호당평균 부채는 5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 「농어가부채현황」 1988. 6. 7 발표: 부채없는 농가는 전체농가의 20.8%인 39만호 정도며, 호당평균 부채규모가 500만원이 넘는 농가가 13.6%인 약 25만호 정도에 이르고 있다.

### 라. 농업담당주체인 농민의 급격한 이농으로 농업노동력의 양적, 질적 저하

• 해마다 40~50만이 이농을 하고 있으며, 89. 12현재 678만6천명 밖에 안돼 전체 인구의 약 15%에 불과하다. 노령화 여성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 • 탈농화를 위한 농업구조정의 전망

구 분	단 위	87	92	2000
농 어 가 인 구 비 중	%	20.0	15.5	10.4
농 가 당 영 농 규 모	ha	1.15	1.20	1.67
(전업농)	ha	(1.27)	(1.60)	(2.70)
농 가 소 득	천원	6,535	11,900	25,580
(농외소득 비중)	(%)	(39)	(48)	(70)
농 어 촌 도 로 포 장 율	%	34	80	100

### 마. 농업생산기반의 파괴

아메리카 농산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판매전략인 잉여농산물 원조의 무분별한 수용과 정권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장기적 전망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엄청난 쏟아져 들어온 느닷없는 아메리카 농산물은 훌륭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셈이다.

목화밭이 사라지고 밀밭이 사라졌으며 뽕밭도, 콩밭도, 유채도 풍전등화다. 담배농사도, 과일농사도 끝장이 날 판이다. 공짜로 주다가, 조금 받다가, 제대로 받다가 나중에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바가지를 씌워 옛날 투자액의 몇배를 훔쳐가는 것이다.

• 포도농사의 기반붕괴: 83년~93년까지 10개년계획에 의거(정부정책) 2,675억원이 투자되어 14,500정보의 포도원이 새로조성(지난 6년간 3배로증가) 되었으나, 90년 1월 포도주의 완전한 수입자유화로 양조용 포도재배면적 711정보중 폐원희망 면적이 56.3%인 400여 정보가 되고 있다. 현재 3만여 농가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으나 그중 3천농가가 양조용 포도를 재배하여 연간 60억원의 소득은 올렸었다.

• 소사육기반 파괴: 금년에 쇠고기를 3만9천톤이나 수입한다는대도 소값은 계속 치솟고 있다. 그 이유는 84~85년의 소값과동때 무조건 암소와 송아지 도살을 자행한 결과 생산기반이 파괴되어 이제 그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86년말 237만마리(한우)이던 소가 88년 9월에 169만 마리로 격감하여 1년에 1마리밖에 낳지 못하는 소의 생산기반이 무너져 아무리 수입해봐야 한장투석이다.

• 담배농사위협: 양담배가 10%만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6천에 담배재배 농가는 파산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장점유율이 7%에 육박하고 있어 10%달성은 금년안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91년도엔 다른 농사로 전업할 수 밖에 없고, 91년 가을엔 영락없이 과일생산으로 죽을 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악순환은 전 작목에 파급되어 농가경제는 물론 나라살림이 거덜이 날 판이다.

• 그외, 사과, 배, 양고라토끼, 땅콩, 무우, 감자 등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고 있다.

### 바. 국제곡물상의 국내시장점유(1983년)

• 국내식품유통의 43%를 외국식품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 국내 50대 재벌중 20개 그룹이 식품가공에 참여,

그룹매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강하다.

롯데-33%, 두산-53%, 미원-52%, 해태-68%, 대한전선-68%, 농심-70%, 삼양식품-94% 신동아-34%, 통일-31% 등

사. 농업정책이 아닌 대책남발

• 미국이 최대 공업국가이자 최대의 농업국가라는데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정책은 타의적으로 규정지어져 왔다. 농업정책 역시 어떻게 하면 미국의 농산물을 많이 사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중장기적 전망이나 계획 수립이 아닌 그때만의 미봉책으로 대책만을 세워왔다. 대책이란 일시적으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대한나라의 가장 기본산업이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대책차원에서 소위 귀찮은 처리의 대상으로 대한 다는게 얼마나 단견이고 수치스러운 노릇인가!

• 대책의 연속

- 86. 3 농어촌종합대책
- 87. 3 농어가부채경감대책
- 87. 12 농어촌경제활성화대책
- 88. 10 선진화합대책
- 89. 4. 8 수입자유화조치
- 89. 4. 28 농어촌종합발전대책
- 89. 12. 30 농어가부채경감대책

•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의 농업발전구상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 촉진

농어촌진흥공사설립, 농지관리기금신설, 농지임대차 제도의 적극활용 영농조합과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농업진흥구역의 설정운영. 생산기반정비와 기계화 촉진, 농어촌자금 활용의 편의제공

- 농산물가격안정과 수요개발
- 농외소득원개발
- 농어촌 정주권개발
- 농어가 부채경감과 경제안정
-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에 따른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핵심은 구조개선촉진이며 나머지는 실효성없는 구

색맞추기에 불과하다.

3. 마치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주체적 입장에서 농업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비주체적인 대책남발로 인하여 농업의 경영구조가 왜곡되고 있다.

1) 농업경영의 전문화, 단일화가 비정상적으로 진전되어 복합경영이 파괴되고 있다.

토지 이용의 조방화, 농가노동력의 유희화, 자본의 낭비초래

- ①생산력이 발달해도 영세소농경영이 온존
- ②수입개방으로 인해 재배할 작목이 제한
- ③농산물 가격정책이 차별적으로 실시
- ④농산물시장이 대도시 시장에 의존함에 따라 대량 출하 강요

2) 영세소농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의 이질화가 진전되고 있다.

농민층분해의 특질(전계층 하강운동하의 중간층집 중경향)로 인해 농업경영구조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영세소농이 주류형성

- ①비농가
- ②부분적 농업종사자, 명목적 전업농가(노부부농가)
- ③부분적 농업종사자, 경업주농가
- ④농업겸업병립농가
- ⑤일시적 겸업종사, 농업주 농가
- ⑥전업농가
- ⑦부농적 전업농가
- ⑧기업적 농업

이중에서 ⑦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⑧은 예적으로만 존재하고 ⑥이 감소하는 가운데서 ①~⑤가 증대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농민층 분해의 특징이다.

3) 농업과 공업의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분리적이고 파행적으로 진전되고 있다.